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의지 재확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대군민 보고회' 갖고 추진경과 보고

국제태권도사관학교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태권도의 부흥을 꾀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군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총력을 쏟는다. 대군민 보고회를 통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더욱 대동단결하자는 취지에서다.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진옥)는 17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정진옥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군민 등 2천여명이 참석, 추진 과정을 보고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대군민 보고회'에서는 특히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운천·안호영 국회의원, 고봉수 전북태권도협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대군민 보고회'가 17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황인홍 군수,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사전타당성 용역비 반영 등 첫 관문을 뚫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추진경과를 군민들에게 '대군민 보고회'를 통해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대군민 보고회는 농악대의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열고 무주군태권도시범단의 태권도시범공연, 그동안 펼쳐온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활약상을 담은 홍보영상, 무주군 김정미 기획실장의 추진경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와 정운천·안호영 국회의원 등의 축사도 이어졌다.

특히 본행사에서는 그동안 1부 능선을 넘도록 적극 지원한 정운천 국회의원과 안호영 국회의원에게 황인홍 군수가 감사패를 전달하고 군민과 함께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진옥 추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열화와 같은 도움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국회에서 막판에 확보됐다"며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단초가 될 용역비가 확보된 만큼 앞으로도 추진위와 군민들은 설립이 실현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격려사에 나선 황인홍 군수는 "정·관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어려웠던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국회에서 확보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 기본계획 등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전 군민과 태권도계가 지혜와 힘을 하나로 뭉쳐 반드시 무주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사관학교 홍보 타올을 활용한 '성공기원 퍼포먼스'도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앞으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되면 1년 과정의 대학원대학으로 300명(해외 280명, 국내 20명)을 모집해 글로벌 태권도 인재를 양성, 한류를 이끌고 국익과 국가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진안군, 도내 최초 24시간 긴급돌봄사업 시행

진안군은 1월부터 도내 최초로 관내 전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돌봄을 시행한다.

이번 24시간 긴급돌봄은 전춘성 군수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상황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면밀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인 2022년 초부터 준비해왔으며 2023년 본예산에 전액 군비로 4,600만원의 사업비를 세우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사업은 관내 거주 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여행, 업무 출장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1일 1만원이며 1회 이용 시 5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1회 연장가능), 연간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긴급돌봄 시행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호자와 장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용자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이용절차는 긴급돌봄사업 수행기관인 흰마실(백운면 소재/063-433-2200) 또는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430-29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

무주군이 올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비롯한 8개 분야 93명의 근로자를 선발하고 오는 3월부터 산림분야 일자리 분야에 투입한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숲가꾸기 산림자원 조사, 도로변 숲 관리, 화단가꾸기, 임도시설 유지·보수 관리, 가로수 전지전정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작업별, 시기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와 함께 생활 속 산림복지 실현 확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 접수는 무주군 산림녹지과 방문해 사무실에 구비된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무주지역 군민으로 사업별 자격 요건을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자 및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 지정된 중위소득 기준 초과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분야별 응시자격과 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무주군 산림녹지과 신정호 과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업을 통해 산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지역역량강화 위한 청소년문화 탐방 추진

무주군은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지역문화 탐방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모이고 어울리고 상생하는 무주 중심지'라는 비전을 갖고 2023년까지 반디키움센터, 청소년키움센터 등 전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문화 교육 거점을 조성하게 된다.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무주읍 내 시설간 연계를 강화해 반디 코디네이터 양성,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등 지속가능한 무주의 일꾼인 지역주민을 역량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 지역문화탐방은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무주군 내 청소년들이 타지역의 문화유산을 탐방, 체험하면서 사회성과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초·중·고 학교 별 신청계획서 작성 및 멘토링 지원,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했다.

총 6개 청소년 팀 총 26명이 최종 선정이 돼 직접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팀 별 무주청년 멘토 1인~2인이 동행하며 함께 활동하게 된다.

또한 제주도 여행작가인 허준성 작가를 초청해 제주도 역사문화 교육과 여행작가 진로 탐색 강연을 진행하게 된다.

지역문화탐방이 끝나고 오는 2월 중 성과공유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 공유 및 활동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청소년 지역문화탐방 추진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진로 개발과 탐색에 도움이 되고, 꿈과 희망이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장수군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재해보상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4,136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6,148명으로 가입자 수가 전년에 비해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24억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에 가입 농가에게 보험료의 95%를 지원한다.

농가는 5% 자부담금만 부담하면 적은 비용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작목별 신청 기간에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2차 공모

진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3개 품목에 대한 공급 업체를 공개모집한다.

군은 지난 16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꿀과 차를 추가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 1차 공개모집에서 신청자가 없었던 6개 품목(고구마, 건나물, 주류, 흑돼지돈까스, 염소진액, 승마체험권)과 함께 4차 회의를 통해 추가 선정된 5개 품목(하늘마, 도라지정과, 더덕정과, 홍삼도라지정과, 포도즙)을 포함한 총 13개 품목에 대해 공급 업체 모집을 진행한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2년간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2월 1일~3일까지 3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누리집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답례품목을 상시로 신청받고 있으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품목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9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3월 열린다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위원회(위원장 남귀현)는 17일 위원장을 비롯한 축제위원과 군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제19회 진안고원 운장산고로쇠축제 1차 총회를 진안군 주천면 행복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축제 기본 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고 4년 만에 대면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축제는 3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오랜만에 치러지는 현장 축제를 위해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으며, 고로쇠 가수왕 선발, 고로쇠 수액 채취 체험 등 기존에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유지 및 보완을 거치고, 고로쇠 볼링대회, 진안고원길 걷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